24시간 어린이집

꿈틀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년 특강

어르신 건강교실

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②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 ③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

목포시 '3대 행복도시' 만들기 팔 걷었다

신생아 양육비 늘려 출산장려
56개 청년사업 211억원 투입
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 구축

목포시가 '관광도시+수산도시+기업도시'를 결합시킨 강소도시 구축<광주일보 4월 2일자 11면 보도>을 토대로 '3대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8일 목포시가 밝힌 3대 행복도시의 전략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다.

강소도시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남 제1의 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다시 세워,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아이와 부모 중심의 맞춤형 보육행정으로 전남지역내 최고의 아이 행복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상향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이 지급된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엔 전액 시비(2억1600만원)로 영유아 보험도 들어준다. 지난해에만 1358명이 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미숙아는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출산지원과 함께 706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보육 시책이 추진된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차액 보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한 부모·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24시간 어린이집'이 최초로 문을 열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관내 219개 어린이집 전체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평가인증 의무화' 조치를 단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 집'도 18개소가 시범 운영된다.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목포시는 지난달 총 21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부서에서 56개 청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선보인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의 핵심 전략은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한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고용·소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목포 청년 잡고(JOG GO), 목포 청년 내일로, 목포 청년 마을로, 목포 청년 일자리 카페운영, 여성 일자리 온라인 창구 운영 등 19개 사업에 44억원이 투입된다.

'설자리'는 청년 맞춤형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수산식품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등 13개 사업에 50억원이 책정됐다.

또 '살자리'는 청년의 행복 복지지원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00억여원 규모다. '한자리'는 청년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8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4284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해 호평을 받았다. 연간 16억원(전액 시비)이 투입돼 1만7000명에게 1인당 24매씩 지급된다.

또 노인대학 10개소와 경로당 66개소 등 76개소에서 어르신 행복 충전 해피 실버교실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시책이다.

이와 함께 집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안부전화로 건강을 살피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비롯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경로식당 6개소 무료 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고독사'지킴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시는 어르신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고당(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펼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치료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과 조기 진단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신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도 순조롭다.

목포시 제2 청사인 트윈스타 건물 3층에 1048㎡ 규모의 치매안심센터가 이달 말 문을 연다. 총 7억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 진료실, 쉼터, 가족카페 등을 갖췄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을 위한 조기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치매 등록 및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남 5개소에 설립을 요청한 치매전담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시설도 신축된다.

치매전담 요양원은 사업비 21억8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652㎡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업비 4억3700만원이 투입돼 321㎡의 규모로 40명을 수용하게 된다. 다음달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마이스산업 지역경제 효자 '톡톡'

지난해 41회 1만8775명 유치
올들어서도 단체 방문 잇따라

목포시가 추진 중인 MICE(전시·박람회 이벤트) 산업이 호남선 KTX와 SRT 개통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한국 산학기술협회 학술대회, 조선내화 창립 70주년 임직원 탐방, 아모레 리더쉽 캠프 등 총 41회에 걸쳐 1만8775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4500명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관광객 1인당 최소 비용지출 10만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정 기준)을 감안하면 최소 18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올해 들어서도 대한 고혈압협회 학술대회(300명), 광주 서구청 직원 연수회(200명), 한국 잡초학회 학술대회(300명) 등 단체 관광객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충북 상당신협 조합원 500명이 전세열차를 이용해 목포를 방문하고 5월에는 한국철도학회 춘계 학술대회(1000명)가 목포에서 개최된다. 또 서울대 교직원 연수회(1000명), 한국전기전자 학회 학술대회(400명) 등도 예정돼 있다.

특히 산정동 가톨릭 성지 조성과 관련 레지오마리에 기념관이 완공되면서 남도 성지순례단의 목포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3월말까지 3514명이 다녀갔고 이달에도 가톨릭 성지 순례단 2514명이 목포를 방문한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봄 여행주간(4월 28일~5월 13일) 대표 프로그램에 목포시의 '봄~로맨틱 목포 1987'이 선정돼 단체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MICE 회의 개최로 1박 이상을 목포에서 체류하게 돼 숙박은 물론 음식, 쇼핑, 주요 관광명소 탐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최근 KTX와 SRT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들의 목포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목포역 앞 인파. 〈목포시 제공〉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노적봉 볏짚 쌓기 재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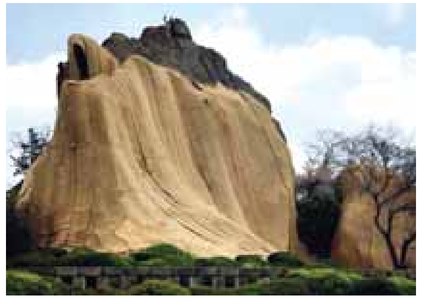
421년만에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재연출한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가 7~8일 유달산 노적봉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에 볏짚을 쌓아 군량미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위장전술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노적봉과 관련된 이야기는 1954년 발행된 당시 초등학교 국어 3-2 교과서의 '전해 오는 이야기 장'의 '노적봉과 영산강'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적봉은 단순히 바위산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유적으로 1597년 노적봉을 재현한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에서 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해경,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마약류 특별단속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90일간 양귀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또 오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은 대마의 밀경작 행위와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 및 대마 등)을 재배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이 우려되는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적발지역과 인적이 드문 독가촌, 농가주택 텃밭 등 재배 예상지역을 수색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사전 정보수집 및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답사를 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양귀비·대마 파종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